Changw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hangwon CCI

2023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동향

2023. 8

창원상공회의소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10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Ⅱ. 요약 및 시사점

◉ 2023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근로자 수가 83만 6,743명으로 전년 상반기 말 대비 3.3% 증가했음. 제조업(+4.2%)과 서비스업(+2.7%)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했음. 특히 제조업 중 근로자 수 비중이 큰 '금속가공제품'(+8.0%), '자동차 및 트레일러'(+7.1%), '기타 운송장비'(+6.5%), '기계 및 장비'(+3.8%)의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했음.

○ 업종별 근로자 수

· 제조업 : 34만 4,915명(4.2%▲) · 서비스업 : 43만 3,432명(2.7%▲)
· 건설업 : 4만 1,086명(0.3%▲) · 기 타 : 1만 7,310명(6.3%▲)

◉ 감소 추세를 이어오던 20·30대 근로자 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모습이 눈에 띔. 2023년 상반기 경남 제조업의 29세 이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했고, 30대의 경우 2.9% 늘었음. 더불어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도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0.6%, 30대 178.5%로 급증했음.

한편 퇴직자 수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를 보인 가운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자 수만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 운송장비(조선, 항공, 철도 등) 제조업의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자연 발생하는 퇴직인력(정년)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로 20·30대 근로자 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하지만, 50대와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정년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의 빈자리를 20·30대 근로자가 메우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상반기 누적 경남유입 근로자 수는 5만 1,311명이나, 경남유출 근로자 수가 5만 2,419명으로 총 1,108명의 순유출(제조업 2,082명)이 이루어졌음.

제조업 근로자의 순유출이 컸던 지역은 부산시와 경기도, 서울시였으며, 이들 지역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이 아닌 타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업종은 '도소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하 파견직),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이었음.

○ 경남 제조업 근로자 전출 (단위 : %)

경남 제조업	→	부산 : 5,849명	제조(31.4), 도소매(17.2), 사회복지(6.8), 숙박음식(6.6)
		서울 : 3,985명	파견직(24.7), 운수창고(16.7), 제조(15.4), 도소매(15.3)

Ⅲ.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 2023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1]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83만 6,743명임. 이는 전년 상반기 말 대비 2만 6,365명(+3.3%) 증가한 수임.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3만 3,797명(+1.8%),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4만 1,018명(+5.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만 5,138명(+2.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5만 6,790명(+0.8%)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임.

경남 규모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

규 모	‘19 上	‘20 上	'21 上	'22 上	'23 上
경상남도	767,905 (4.1)	776,976 (1.2)	793,266 (2.1)	810,378 (2.2)	836,743 (3.3)
10인 미만	213,691 (6.0)	219,103 (2.5)	224,921 (2.7)	229,703 (2.1)	233,797 (1.8)
10인 이상 100인 미만	301,097 (2.6)	303,385 (0.8)	310,542 (2.4)	322,146 (3.7)	341,018 (5.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5,661 (-3.6)	101,680 (-3.8)	104,079 (2.4)	103,019 (-1.0)	105,138 (2.1)
300인 이상	147,456 (10.9)	152,808 (3.6)	153,724 (0.6)	155,510 (1.2)	156,790 (0.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1) 고봉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 2023년 상반기 말 경남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근로자(43만 3,432명) 수와 제조업 근로자(34만 4,915명) 수가 전년 상반기 말 대비 각각 2.7%, 4.2% 증가하면서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었음. 특히 경남의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2년 연속 근로자 수 증가를 보임.

○ 이 밖에 건설업 4만 1,086명(+0.3%), 기타 1만 7,310명(+6.3%)으로 경남의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일제히 증가했음.

경남 업종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

업 종	'19 上	'20 上	'21 上	'22 上	'23 上
경상남도	767,905 (4.1)	776,976 (1.2)	793,266 (2.1)	810,378 (2.2)	836,743 (3.3)
제조업	335,760 (0.5)	329,150 (-2.0)	328,516 (-0.2)	331,041 (0.8)	344,915 (4.2)
서비스업	380,473 (7.8)	395,278 (3.9)	409,751 (3.7)	422,094 (3.0)	433,432 (2.7)
건설업	36,902 (0.2)	37,645 (2.0)	39,145 (4.0)	40,952 (4.6)	41,086 (0.3)
기타	14,770 (6.4)	14,903 (0.9)	15,854 (6.4)	16,291 (2.8)	17,310 (6.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2023년 상반기말 기준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 6만 6,534명, '기타 운송장비' 6만 2,614명, '금속가공제품' 3만 8,825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7,206명, '전기장비' 2만 8,118명 등임.

○ 제조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가운데, 업종별로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금속가공제품'(+8.0%), '비금속 광물제품'(+7.9%), '자동차 및 트레일러'(+7.1%), '기타 운송장비'(+6.5%), '식료품'(+5.0), '1차 금속'(+4.4%), '기계 및 장비'(+3.8%) 등 '의료·정밀·광학기기'(-25.1%)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상반기 대비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

업 종	'19 上	'20 上	'21 上	'22 上	'23 上
제조업	335,760 (0.5)	329,150 (-2.0)	328,516 (-0.2)	331,041 (0.8)	344,915 (4.2)
기계 및 장비	64,719 (0.0)	63,364 (-2.1)	63,053 (-0.5)	64,092 (1.6)	66,534 (3.8)
기타 운송장비	69,722 (5.0)	68,620 (-1.6)	61,568 (-10.3)	58,817 (-4.5)	62,614 (6.5)
금속가공제품 (기계·가구 제외)	34,876 (0.5)	34,392 (-1.4)	34,480 (0.3)	35,954 (4.3)	38,825 (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929 (-1.8)	33,264 (-4.8)	34,851 (4.8)	34,726 (-0.4)	37,206 (7.1)
전기장비	21,854 (0.6)	24,134 (10.4)	26,022 (7.8)	27,617 (6.1)	28,118 (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2,748 (-1.9)	21,189 (-6.9)	21,602 (1.9)	21,238 (-1.7)	21,493 (1.2)
식료품	15,704 (2.9)	15,393 (-2.0)	16,010 (4.0)	17,223 (7.6)	18,090 (5.0)
1차 금속	15,918 (-5.0)	14,288 (-10.2)	14,133 (-1.1)	14,293 (1.1)	14,917 (4.4)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장비	9,879 (2.9)	9,840 (-0.4)	10,652 (8.3)	10,892 (2.3)	11,141 (2.3)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137 (-0.7)	8,912 (-2.5)	9,145 (2.6)	9,060 (-0.9)	9,164 (1.1)
비금속 광물제품	7,045 (-5.7)	6,716 (-4.7)	6,771 (0.8)	6,819 (0.7)	7,356 (7.9)
섬유제품 (의복제외)	5,267 (-1.1)	5,187 (-1.5)	5,449 (5.1)	5,532 (1.5)	5,607 (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20 (-3.4)	3,978 (1.5)	4,071 (2.3)	4,068 (-0.1)	4,210 (3.5)
의료·정밀·광학기기	5,602 (-0.3)	5,692 (1.6)	5,915 (3.9)	5,585 (-5.6)	4,184 (-25.1)
기타	14,440 (-0.1)	14,181 (-1.8)	14,794 (4.3)	15,125 (2.2)	15,456 (2.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13만 458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9,499명, ‘전문·과학 및 기술’ 3만 8,844명, ‘교육’ 3만 2,165명, ‘숙박 및 음식점’ 3만 385명, ‘부동산’ 2만 8,521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만 7,667명, ‘운수 및 창고’ 2만 4,964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업 종	‘19 上	‘20 上	'21 上	'22 上	'23 上
서비스업	380,271 7.8%	395,192 3.9%	409,751 3.7%	422,094 3.0%	433,432 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103,889 10.4%	111,487 7.3%	118,416 6.2%	125,162 5.7%	130,458 4.2%
도매 및 소매업	44,311 4.0%	45,707 3.2%	47,341 3.6%	48,838 3.2%	49,499 1.4%
전문, 과학 및 기술	32,516 3.4%	34,005 4.6%	35,771 5.2%	36,761 2.8%	38,844 5.7%
교육	27,097 13.0%	28,315 4.5%	29,746 5.1%	30,963 4.1%	32,165 3.9%
숙박 및 음식점업	25,929 16.4%	26,797 3.3%	26,621 -0.7%	28,763 8.0%	30,385 5.6%
부동산업	26,843 8.1%	28,459 6.0%	28,931 1.7%	28,487 -1.5%	28,521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5,579 -1.4%	24,615 -3.8%	25,816 4.9%	26,632 3.2%	27,667 3.9%
운수 및 창고업	22,216 16.5%	25,318 14.0%	26,906 6.3%	26,023 -3.3%	24,964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7,145 5.0%	25,454 -6.2%	24,456 -3.9%	24,038 -1.7%	24,229 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6,549 5.4%	16,958 2.5%	17,378 2.5%	17,158 -1.3%	17,500 2.0%
금융 및 보험업	15,870 2.5%	15,857 -0.1%	15,634 -1.4%	15,672 0.2%	15,684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7,492 9.7%	7,186 -4.1%	7,212 0.4%	7,769 7.7%	7,673 -1.2%
정보통신업	4,834 4.5%	5,034 4.1%	5,523 9.7%	5,828 5.5%	5,843 0.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3) 경상남도 연령별 근로자

○ 2023년 상반기말 기준 경남의 연령별 근로자 수를 보면, 40대(40세~49세) 근로자 수가 21만 1,875명, 50대 근로자 수가 21만 1,709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0.6%를 차지했음. 다음으로 30대 16만 3,895명, 60세 이상 14만 6,446명, 29세 이하 10만 2,818명 순으로 나타났음.

○ 40·50대 중심의 근로자 수 비중은 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 제조업 기준 40대 근로자 수는 9만 6,752명, 50대 8만 8,359명으로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의 53.7%를 차지했음. 다음으로 30대 8만 592명, 29세 이하 4만 1,267명, 60세 이상 3만 7,945명 순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

	‘19 上	‘20 上	'21 上	'22 上	'23 上
전체	767,905 (4.1)	776,976 (1.2)	793,266 (2.1)	810,378 (2.2)	836,743 (3.3)
제조업	335,760 (0.5)	329,150 (-2.0)	328,516 (-0.2)	331,041 (0.8)	344,915 (4.2)
29세 이하	102,418 (2.0)	99,081 (-3.3)	102,151 (3.1)	100,558 (-1.6)	102,818 (2.2)
제조업	41,710 (-3.4)	38,242 (-8.3)	38,364 (0.3)	36,975 (-3.6)	41,267 (11.6)
30~39세	178,843 (-0.5)	172,379 (-3.6)	166,568 (-3.4)	161,721 (-2.9)	163,895 (1.3)
제조업	90,619 (-2.1)	86,466 (-4.6)	82,085 (-5.1)	78,317 (-4.6)	80,592 (2.9)
40~49세	209,863 (1.1)	211,241 (0.7)	211,248 (0.0)	211,802 (0.3)	211,875 (0.0)
제조업	96,258 (-0.8)	95,556 (-0.7)	94,794 (-0.8)	95,377 (0.6)	96,752 (1.4)
50~59세	185,988 (7.7)	191,833 (3.1)	197,250 (2.8)	205,360 (4.1)	211,709 (3.1)
제조업	83,375 (4.0)	82,986 (-0.5)	83,900 (1.1)	86,605 (3.2)	88,359 (2.0)
60세 이상	90,793 (17.8)	102,442 (12.8)	116,049 (13.3)	130,937 (12.8)	146,446 (11.8)
제조업	23,798 (12.7)	25,900 (8.8)	29,373 (13.4)	33,767 (15.0)	37,945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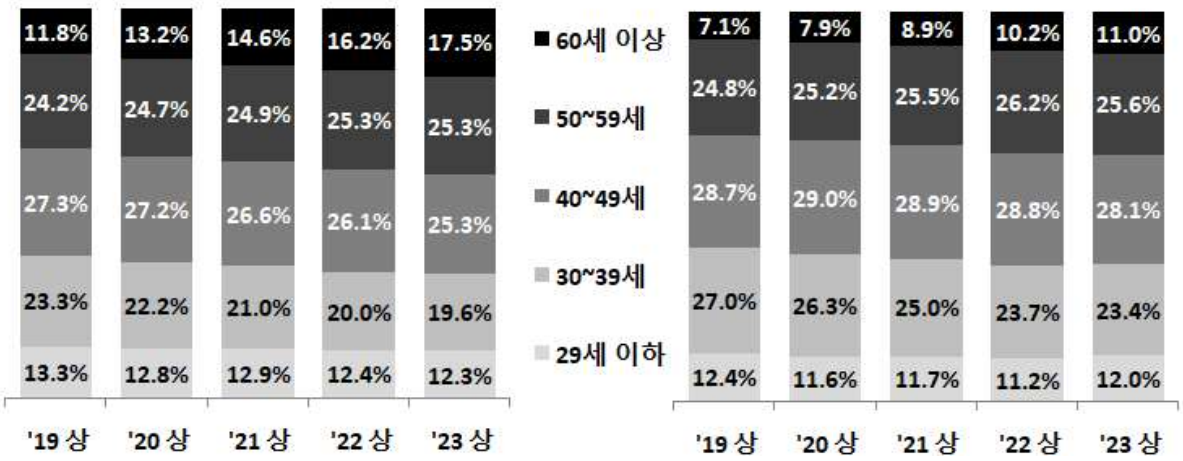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최근 5년 간의 연령별 근로자 수 변화의 추세를 보면, 2019년 상반기 11.8% 수준이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23년 상반기 17.5%로 5.7%p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 근로자 수 비중은 각각 1.0%p, 3.7%p 줄었음.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 근로자 수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9년 상반기 7.1%에서 2023년 상반기 11.0%로 3.9%p 늘었고, 20대와 30대 근로자 수 비중은 각각 0.4%p, 3.6%p 줄었음.

제조업을 비롯한 경남 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이 자연적인 고령화 추세에 20·30대 청년인력의 추가 투입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경남 연령별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2.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3년 상반기 경남 취업자 수(누적)가 24만 425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만 7,386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7%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취업자 중 경력 취업자(재취업) 수는 20만 7,345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신규 취업자 수는 3만 3,080명으로 27.9% 증가했음.

이 중 제조업의 경우 경력 취업자 수는 6만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신규 취업자 수는 1만 5,553명으로 93.3% 급증했음.

2023년 상반기(누적) 경남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

	2021 上		2022 上		2023 上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취업	226,890 (10.5)	71,118 (15.3)	234,125 (3.2)	68,671 (-3.4)	240,425 (2.7)	77,386 (12.7)
신규취업	26,061 (9.0)	9,256 (52.8)	25,866 (-0.7)	8,048 (-13.1)	33,080 (27.9)	15,553 (93.3)
29세 이하	14,942 (10.9)	5,282 (42.1)	15,180 (1.6)	4,469 (-15.4)	18,313 (20.6)	8,073 (80.6)
30~39세	3,441 (78.8)	2,436 (188.6)	3,023 (-12.1)	1,986 (-18.5)	6,938 (129.5)	5,532 (178.5)
40~49세	1,651 (-9.6)	626 (22.5)	1,540 (-6.7)	606 (-3.2)	1,979 (28.5)	1,115 (84.0)
50~59세	2,827 (-14.3)	534 (-11.1)	2,651 (-6.2)	581 (8.8)	2,393 (-9.7)	442 (-23.9)
60~69세	3,199 (-5.9)	378 (-1.6)	3,472 (8.5)	406 (7.4)	3,455 (-0.5)	391 (-3.7)
재취업	200,830 (10.7)	61,862 (11.2)	208,259 (3.7)	60,623 (-2.0)	207,345 (-0.4)	61,833 (2.0)
29세 이하	38,427 (11.7)	13,245 (13.1)	38,447 (0.1)	12,650 (-4.5)	36,100 (-6.1)	12,405 (-1.9)
30~39세	35,795 (4.8)	13,943 (3.8)	34,713 (-3.0)	13,024 (-6.6)	34,821 (0.3)	14,218 (9.2)
40~49세	45,003 (5.2)	15,853 (6.3)	45,053 (0.1)	15,028 (-5.2)	43,488 (-3.5)	15,062 (0.2)
50~59세	43,036 (10.8)	12,304 (15.6)	44,577 (3.6)	12,215 (-0.7)	43,645 (-2.1)	12,214 (0.0)
60~69세	38,568 (23.6)	6,517 (32.5)	45,469 (17.9)	7,706 (18.2)	49,291 (8.4)	7,934 (3.0)
퇴직	209,748 (1.5)	67,292 (-3.7)	219,786 (4.8)	66,685 (-0.9)	211,366 (-3.8)	65,294 (-2.1)
29세 이하	42,790 (2.0)	14,119 (-1.5)	44,726 (4.5)	13,728 (-2.8)	41,009 (-8.3)	12,405 (-9.6)
30~39세	36,122 (-3.5)	14,473 (-7.5)	36,802 (1.9)	14,367 (-0.7)	35,464 (-3.6)	14,494 (0.9)
40~49세	44,802 (-1.3)	16,352 (-3.5)	45,849 (2.3)	15,738 (-3.8)	42,755 (-6.7)	15,042 (-4.4)
50~59세	43,862 (0.9)	13,143 (-8.8)	45,936 (4.7)	13,057 (-0.7)	44,247 (-3.7)	12,869 (-1.4)
60~69세	42,172 (9.6)	8,538 (8.7)	46,473 (10.2)	9,050 (6.0)	47,891 (3.1)	9,955 (10.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신규취업의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대와 30대 신규 취업자 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

2023년 상반기 20·30대 신규취업자 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0.6%, 129.5% 증가했고, 이 중 제조업 신규취업자 수는 각각 80.6%, 178.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퇴직자 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3.1%(제조업 10.0%) 증가했음. 타 연령대와 달리 20·30대 신규취업자 수 증가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산업의 생성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정년)인력을 20·30대가 본격적으로 대체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상반기 누적 경남의 퇴직자 수는 21만 1,366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8% 감소했으나, 60세 이상이 퇴직자 수는 4만 7,891명으로 3.1% 증가해 가장 많은 퇴직자 수를 나타냈음. 다음으로 50대(4만 4,247명), 40대(4만 2,755명), 20대(4만 1,009명), 30대(3만 5,464명) 순으로 나타났음.

경남 2023년 상반기(누적) 퇴직사유별 퇴직자 수

퇴직사유		전체	증감 ('22上 대비)	제조업	증감 ('22上 대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건	123,554	0.5%	45,960	0.6%
	비중	58.5%	2.5%p	70.4%	1.9%
계약만료, 공사종료	건	48,533	-11.6%	6,596	-2.4%
	비중	23.0%	-2.0%p	10.1%	0.0%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건	21,767	-8.8%	6,858	-18.3%
	비중	10.3%	-0.6%p	10.5%	-2.1%
폐업, 도산	건	6,536	6.6%	2,091	-5.6%
	비중	3.1%	0.3%p	3.2%	-0.1%
정년	건	3,468	0.4%	1,872	0.4%
	비중	1.6%	0.1%p	2.9%	0.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건	2,328	-10.3%	575	-0.7%
	비중	1.1%	-0.1%p	0.9%	0.0%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건	1,278	-36.2%	715	4.7%
	비중	0.6%	-0.3%p	1.1%	0.1%
기타	건	3,902	-0.1%	627	22.2%
	비중	1.8%	0.1%p	1.0%	0.2%
총계		211,366	-3.8%	65,294	-2.1%

○ 주목할 점은 60세 이상 퇴직자 수 증가와 함께 60세 이상 재취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지난 3년간 60세 이상 퇴직자 수는 2021년 상반기 23.6%, 2022년 상반기 17.9%, 2023년 상반기 8.4%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는 장년 숙련 근로자를 지역 내 산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남의 2023년 상반기 퇴직자 수가 3.8% 감소한 가운데, 퇴직사유별로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2만 3,554명), '계약만료, 공사종료'(4만 8,533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하 불황에 의한 퇴사)(2만 1,767명), '폐업, 도산'(6,536명), '정년'(3,468명),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2,328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이 중 퇴직사유별 증감을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전년 대비 0.5% 늘었고, 비중도 2.5%p 높아졌음. 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공사종료'(-11.6%), '불황에 의한 퇴사'(-8.8%)에 따른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폐업, 도산'에 따른 퇴직자 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 경상남도 근로자 경력이동 현황

○ 2023년 상반기 누적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5만 2,419명이며,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직해온 근로자 수는 5만 1,311명을 기록해 총 1,108명의 근로자 순유출을 보였음.
특히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이동이 두드러졌음. 경남에서 1만 9,419명이 전출했고, 경남으로 1만 7,337명이 전입해와 2,082명의 순유출을 보였음.

○ 지역별 유출 근로자수를 보면 부산시로 1만 6,523명, 서울시 1만 2,103명, 경기도 6,606명, 울산시 3,132명, 경상북도 2,991명, 대구시 2,103명, 전라남도 1,783명, 충청남도 1,469명 순으로 이동 근로자 수가 많았음.
반대로 유입 근로자 수를 보면, 부산시로부터 1만 6,819명, 서울시 1만 2,635명, 경기도 6,073명, 울산시 2,986명, 경상북도 2,867명, 대구시 2,144명, 전라남도 1,508명, 충청남도 1,223명 순임.

2023년 상반기 경남지역 근로자 타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명)

시·도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시·도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부산	16,523 (5,849)	16,819 (5,226)	296 (-623)	인천	1,143 (469)	962 (350)	-181 (-119)
서울	12,103 (3,985)	12,635 (3,767)	532 (-218)	충북	1,027 (453)	840 (372)	-187 (-81)
경기	6,606 (2,719)	6,073 (2,446)	-533 (-273)	대전	1,018 (349)	819 (204)	-199 (-145)
울산	3,132 (1,486)	2,986 (1,343)	-146 (-143)	전북	808 (301)	840 (369)	32 (68)
경북	2,991 (1,246)	2,867 (1,042)	-124 (-204)	강원	663 (150)	586 (145)	-77 (-5)
대구	2,103 (721)	2,144 (653)	41 (-68)	제주	447 (103)	431 (85)	-16 (-18)
전남	1,783 (742)	1,508 (605)	-275 (-137)	광주	387 (124)	410 (120)	23 (-4)
충남	1,469 (652)	1,223 (537)	-246 (-115)	세종	216 (70)	168 (73)	-48 (3)
				전체	52,419 (19,419)	51,311 (17,337)	-1,108 (-2,08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 )는 제조업 근로자 수

○ 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집계한 순유출입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532명, 부산시로부터 296명이 순유입했고, 반대로 경기도로 533명, 전라남도로 275명이 순유출했음.

○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내 16개 시·도 중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근로자 순유출이 이루어졌음. 제조업 근로자의 순유출은 부산시 623명, 경기도 273명, 서울시 218명, 경상북도 204명, 울산시 1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남 제조업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업종을 살펴보면, 전체 1만 9,419명의 전출 제조업 근로자의 46.1%는 같은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9.7%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9.6%는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1%는 '운수 및 창고업', 5.9%는 '건설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상반기 경남 제조업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업종 현황

경남 제조업 → 전국 (경남제외)		경남 제조업 → 서울시		경남 제조업 → 부산시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제조업	8,958명 (46.1%)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84명 (24.7%)	제조업	1,183명 (31.4%)
도매 및 소매업	1,876명 (9.7%)	운수 및 창고업	665명 (16.7%)	도매 및 소매업	648명 (17.2%)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73명 (9.6%)	제조업	615명 (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0명 (6.8%)
운수 및 창고업	1,177명 (6.1%)	도매 및 소매업	608명 (15.3%)	숙박 및 음식점업	385명 (6.6%)
건설업	1,144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	278명 (7.0%)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3명 (6.5%)

○ 이 중 이동량이 많았던 부산시로는 ‘제조업’(31.4%), ‘도매 및 소매업’(1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8%), ‘숙박 및 음식점업’(6.6%)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로는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4.7%), ‘운수 및 창고업’(16.7%), ‘제조업’(15.4%), ‘도매 및 소매업’(15.3%) 순으로 이동했음.

2023년 상반기 타지역 근로자의 경남 제조업 전입 업종 현황

전국 (경남제외) → 경남 제조업		부산시 → 경남 제조업		서울시 → 경남 제조업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제조업	8,570명 (49.4%)	제조업	2,749명 (52.6%)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83명 (31.4%)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04명 (11.0%)	도매 및 소매업	643명 (12.3%)	도매 및 소매업	648명 (17.2%)
도매 및 소매업	1,825명 (10.5%)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3명 (6.0%)	제조업	619명 (16.4%)
건설업	1,058명 (6.1%)	숙박 및 음식점업	297명 (5.7%)	운수 및 창고업	309명 (8.2%)
숙박 및 음식점업	847명 (4.9%)	건설업	223명 (6.6%)	숙박 및 음식점업	278명 (7.4%)

○ 반대로 경남 제조업으로 전입해온 타 지역 근로자의 기존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같은 ‘제조업’이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0%), ‘도매 및 소매업’(10.5%), ‘건설업’(6.1%), ‘숙박 및 음식점업’(4.9%) 순이었음.

○ 이 중 전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부산시로부터 전입해온 업종은 ‘제조업’(52.6%), ‘도매 및 소매업’(12.3%), ‘사업시설 관리, 지언 및 임대 서비스업’(6.0%), ‘숙박 및 음식점업’(5.7%) 순으로 많았고, 서울시로부터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 ‘도매 및 소매업’(17.2%), ‘제조업’(16.4%), ‘운수 및 창고업’(8.2%) 순으로 나타났음.